

## 김경안 청장, 이회성 CF연합 회장과 면담 새만금의 무탄소에너지(CFE) 확산과 탄소중립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

-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3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회성 CF연합(Carbon Free Alliance) 회장을 만나, 새만금의 무탄소에너지(CFE) 확산과 탄소중립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.
- 김 청장은 지난 2023년 10월에 출범한 CF연합의 국내외 다양한 성과에 공감하며, 새만금개발청도 이에 발맞추어 새만금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향상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.
-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중 5·6공구가 국내 최초로 '스마트그린 국가 시범산업단지'로 지정(22.7, 국토교통부)되어, 2029년까지 탄소배출량의 27%를 저감 하고, 2040년까지 무탄소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.
- 또한, 기업의 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스마트시설 구축과 관련한 정보화 전략계획을 2023년 12월 수립하였고, 이를 운용하기 위한 통합관제센터 건립 설계를 착수하여 추진 중이다.
- 한편, 새만금개발청은 변화된 새만금 개발여건을 반영하여 수변 도시 개발계획을 재정립 중에 있으며, 수변도시를 '스마트·탄소중립' 도시로 특화하고, 연계한 새만금신항만과 연계한 친환경 배후단지 로써의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도 밝혔다.
- 김 청장은 "CF연합이 추진 중인 'CFE 이니셔티브'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며, 새만금에 터를 잡은 기업들에게 탄소중립이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"이라고 강조했다.
- 향후 양 기관은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확대 등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, 상호간의 협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.

2024. 3. 22.

새만금개발청 신산업전략과